

|발표주제|

수소 사회 도래와 미래 비전 2030



전순일 상무, 현대자동차

학력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, 2003
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석사, 1999
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, 1997

경력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설계실 실장, 2019~현재
현대자동차 연료전지설계팀 팀장, 2018~2019
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제어/시험 파트장, 2013~2018

|발표초록|

최근,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.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의 경제적/환경적 효과를 인지하고,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

(전동화) 자동차산업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내연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BEV, FCEV 등 친환경 자동차 비중을 늘리는 전동화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.

(연료전지 기술)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의 오랜 기술개발 경험을 보유한 현대자동차는, 승/상용 분야에서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이라는 쾌거를 이루고 있으며, 이번 발표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연료전지 부품/기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한다.

(연료전지 사업화/브랜드) 현대자동차는 승/상용 연료전지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모빌리티 및 동력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, 실제로 이를 사업화하고 있다.

한편, 작년 12월 대중에 공개한 HTWO 브랜드는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사업 의지를 담은 독자 브랜드로서, ‘인류(Humanity)’ 와 ‘수소(Hydrogen)’라는 두 개의 큰 축을 통해 수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.

수소경제의 잠재력을 일찍이 인지한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 수소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30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.